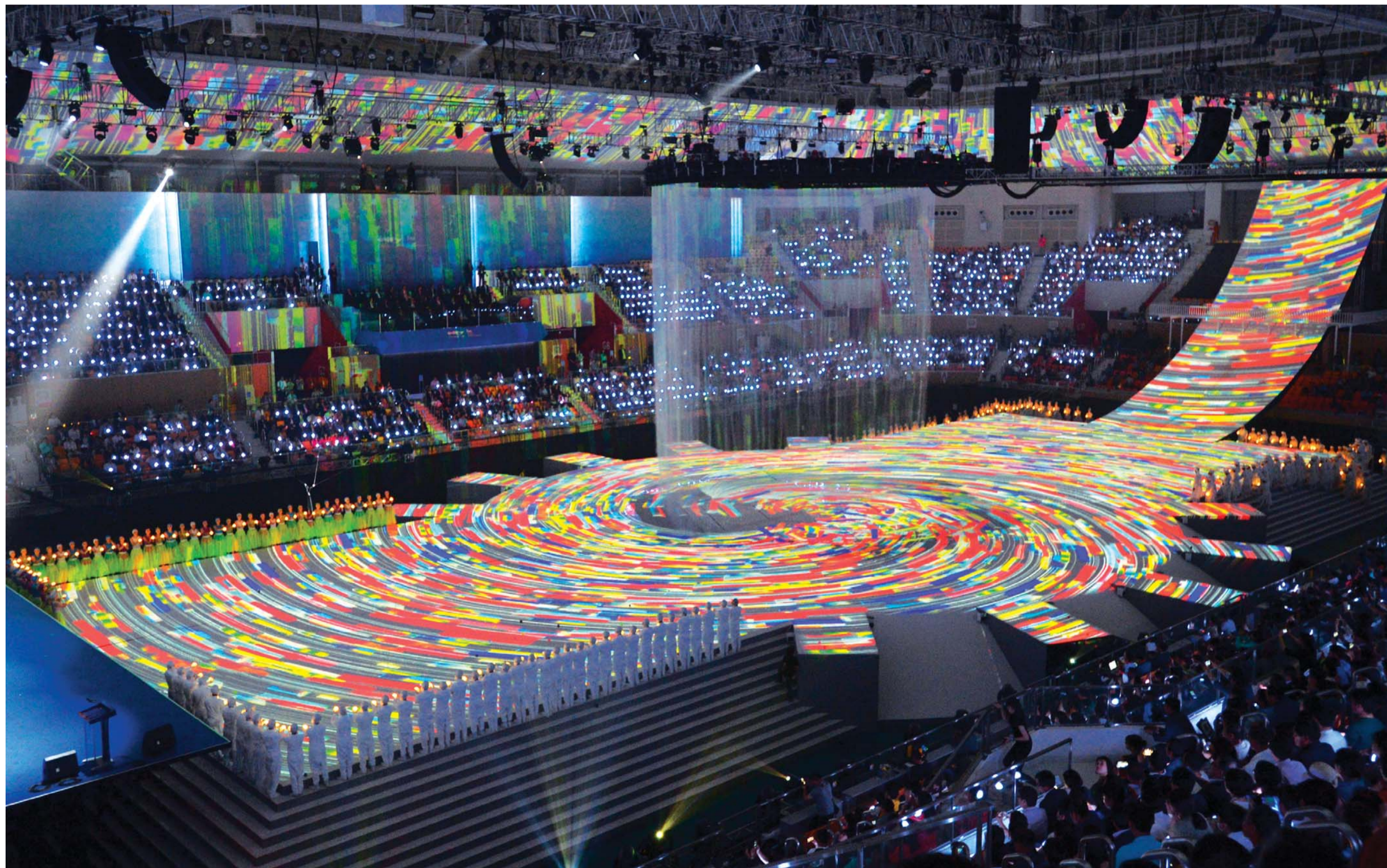


광주, 도전과 열정 아름답게 빛나다



제18회 2019광주FINA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개회식이 12일 밤 광주시 광산구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렸다. '빛의 분수'를 주제로 한 문화공연에서 광주의 빛으로 정화된 바다, 생명이 되살아나는 광주의 역동적인 모습을 미디어 아트로 형상화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세계수영대회

세계 최대 수영축제인 '2019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빛고을 광주에서 12일 화려한 개막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대회인 만큼 개막 전부터 대회 흥행과 함께 성공 개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문대통령·마그리오네 FINA 회장 등 5400여명 참석 화려한 개막식 다이빙 우하람 결승 진출 ... 오늘 오픈워터 수영 남자 5km 첫 금메달

〈관련기사 및 화보 2·3·4·5·6·7·8·9·10·11·12·15·19면〉
광주여자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개회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후리오 마그리오네 FINA 회장, 이용섭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장, 박양우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

원 등 국내외 주요 초청인사 1500명, 선수단 350명, 미디어 관계자 500명, 관람객 3000명 등 총 54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라는 대회 슬로건에 어울리게 5·18 민주광장 분수대에서 세계 각국에서 가져온 물이 하나가 되는 '합수식'

으로 시작했다. 개회식에 앞서 이날 이번 대회의 첫 경기 시작되면서 선수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한국 다이빙의 간판 우하람(21·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첫 결선진출 소식을 알렸다. 한국

아티스틱 수영의 기대주 이리영(19·고려대)은 첫 선수권대회를 15위로 마감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남자 다이빙 스프링보드 1m 예선에 출전한 우하람은 6차시기 합계 369.10점을 만들어 3위로 결승행에 성공했다. 자신의 대회 최고 순위다. 여자부의 김수지(21·울산광역시청)는 5차 시기 합계 238.95점을 받아 7위로 결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반면, 아티스틱 수영 솔로에 출전한 이리영(19·고려대) 선수는 규정종목(테크니컬) 예선에서 77.492점으로 15위를 기

록, 12명까지 진출하는 결선에는 오르지 못했다. 듀엣 테크니컬에 다시 이리영 선수와 백서영(19·건국대) 선수가 출전했지만, 31위를 기록해 예선에 그치는 아쉬움을 남겼다. 13일 오전에는 여수 엑스포해양공원에서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이 나온다. 국내에는 생소한 '바다 마라톤' 오픈워터수영 남자 5km가 주목받을 기회다. 가장 인기가 높은 경영은 21일부터 열린다. 광주를 찾는 수영 팬들이 슈퍼스타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 /특별취재단=최권일·김여울기자 cki@

문대통령 "전남 새 비전 '블루 이코노미' 전폭 지원"

섬·해양 등 미래산업 개척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도청을 찾아 민선 7기 김영록 전남지사가 내건 새로운 전남의 비전인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천명했다. 현대자동차·광주사·지역 노동조합이 추진중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이어 전남도가 섬, 해양, 하늘, 바람, 천연자원 등 소위 블루 자원을 토대로 에너지, 관광,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개척하겠다는 '블루 이코노미'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블루 이코노미가 전남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블루칩'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관련기사 13면〉
전남도는 이날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문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미래 지역발전을 선도할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성운모 통상산업자원부장관, 강기정 정무수석, 박지원·서삼석·윤소하 국회의원, 이용재 전남도의장 등 정관계 인사와 600여명의 도민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진행 중인 '전국경제투어' 중 열 번째 행사다. 지난해 10월 30일 전북

을 시작으로 경북·경남·울산·대전·부산·대구·강원·충북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확고한 지지 기반인 호남을 방문한 것은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후 약 2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블루 이코노미 도가 새로운 경제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전남은 낙후하고 강인한 정신으로 역사의 고비마다 역사의 물결기를 바로 잡아 왔다"며 "전남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원년을 맞아 천년을 이어온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준비를 마쳤다"고 인사를 꺼냈다. 이어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가 전남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블루칩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천년을 흘러온 도전 정신과 강인함, 의로운 기개를

유감없이 발휘해 미래세대가 전남의 오늘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이 시작되는 날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공대 2022년 개교,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에너지밸리 조성, 고흥 나로우주센터 및 드론산업, 미래차산업, 바이오 헬스산업,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사업, 바이오산업 경전선 및 무안공항 등 지역 현안사업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남의 무한한 잠재력과 열정으로 블루 이코노미를 반드시 성공시켜 미래로 웅비하는 생명의 땅 으뜸 전남과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비전이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힘찬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내년 최저임금 8590원

240원·2.9% 인상 속도조절·노동계 반발 클 듯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최저임금인상 속도 조절이 현실화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인(8590원)과 근로자(8880원)이 표결에 부쳐 사용자 15표, 근로자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

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 데 이어 속도 조절까지 현실화한 만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5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